



“오렌지군단” 네덜란드의 에이스 아르헨 로벤(오른쪽)이 13일(한국시간) 브라질을 3-0으로 완파하고 3위 메달을 따낸 뒤 동료 디르크 카위트와 애기 꽃을 피우며 브라질리아국립경기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브라질리아 | AP뉴시스

오렌지군단의 심장, 로벤

브라질전 3골 관여 MOM 선정…골든볼 후보
판 할 감독 “맨유 오라” 러브콜에 정중히 거절

브라질대표팀 루이스 펠리페 스콜라리(66) 감독은 12일(한국 시간) 2014브라질월드컵 최고의 선수로 네덜란드의 아르헨 로벤(30·바이에른 뮌헨)을 꼽았다. 로벤은 이튿날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3·4위전에서 팀의 3-0 승리를 이끌며 최우수선수(MOM·Man Of The Match)로 선정됐다. 비록 골을 넣지는 못 했지만, 브라질 수비진을 농락하며 3골에 모두 관여했다.

특히 전반 3분 만에 로벤이 얻어낸 페널티킥은 이날 활약 중에서도 압권이었다. 로빈 판 페르시(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패스를 받은 로벤이 상대 골문을 향해 치고 들어가자, 당황한 치아구 실바(파리 생제르망)는 로벤을 낙야했다. 결국 판 페르시가 페널티킥을 성공하며 네덜란드는 손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었다.

이번 대회 로벤의 성적은 7경기에 출전해 3골·1도움이다. 그러나 3·4위전에서처럼 단순히 공격포인트로 환산할 수 없는 활약이 많았다. 엄청난 스피드로 상대 수비진을 헤집고 다니며 득점 기회를 만들었다. 지난달 14일 스페인과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팀의 5번째 골을 넣을 때는 무려 최대 시속 37km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100m를 10초28에 주파하는 속도다.

로벤에게 상대 수비가 집중되자, 동료들은 손쉽게 공간을 파고들 수 있었다. 이번 대회 7경기에서 네덜란드는 총 15골을 뽑았는데, 로벤이 실질적인 ‘오렌지군단’의 지휘자 역할을 했다.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 등과 함께 일찌감치 브라질 월드컵 골든볼(MVP) 후보로 주목 받았다.

“플라잉 더치 맨”의 주가는 하늘을 찌른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네덜란드 지휘봉을 내려놓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사령탑으로 부임하는 루이스 판 할 감독은 “로벤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오면 대환영”이라며 무한애정을 표현했다. 그러나 로벤은 이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바이에른 뮌헨과 로벤의 계약기간은 2017년 6월까지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네덜란드의 헤르히니오 베이날둠(오른쪽)이 13일(한국시간) 브라질리아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3·4위전 후반 46분 3-0으로 달아나는 썬기골을 터트린 뒤 포효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브라질 국민에게 또 한 번 좌절감을 안기며 3위를 차지했다.

브라질 축구의 몰락…구세주는 무리뉴?

빈사상태 삼바축구 살릴 적임자 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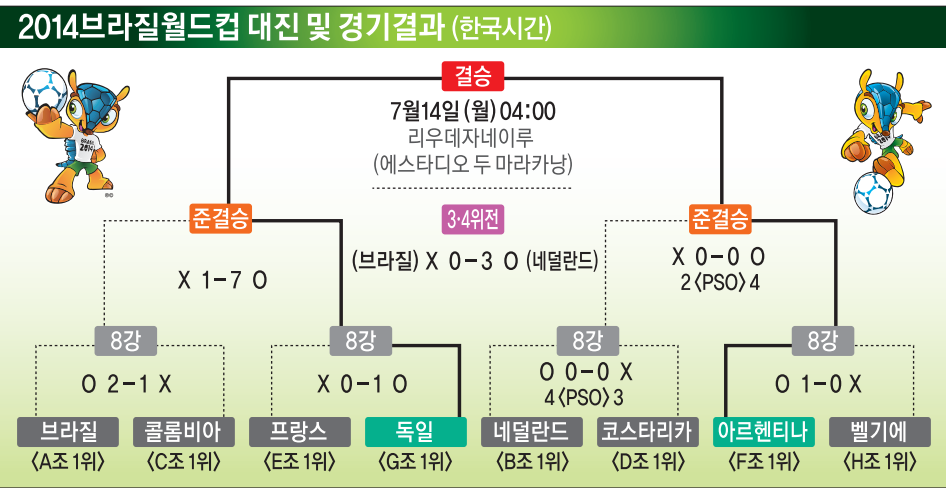
이단 완패…스콜라리 감독 경질 불가피
“브라질축협 후임 감독으로 무리뉴 원해”
첼시와 계약 3년 남아 당장 영입 어려워

브라질의 구원자는 조제 무리뉴(51·첼시·사진)일까?

2014브라질월드컵 개최국 브라질은 13일(한국시간) 브라질리아국립경기장에서 벌어진 3·4위전에서 네덜란드에 0-3으로 무릎을 꿇었다. 9일 독일과의 준결승에서 1-7로 참패를 당한 데 이어 완패라는 점에서 ‘삼바군단’은 브라질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축구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경질 피하기 힘든 스콜라리 감독

브라질은 2002한일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정상 탈환을 목표로 이번 대회에 나섰다. 개최국의 이점을 안고 있어 브라질 국민의 기대감 또한 무척 컸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처럼 브라질 국민은 큰 좌절감을 맛보고 말았다. 결승 진출 실패라는 결과를 떠나 4강전과 3·4위전의 2경기에서 무려 10실점한 무기력증이 더 심각한 문제



●무리뉴 감독이 브라질의 산소호흡기?

연이은 완패에 브라질 축구에 대해선 ‘몰락’이라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다. 심폐소생술이 시급한 브라질 축구를 살릴 적임자로 무리뉴 감독이 떠올랐다. 스페인 일간지 마르카는 13일 “브라질축구협회는 스콜라리 감독의 후임으로 무리뉴 감독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포르투갈 출신의 무리뉴 감독은 2004년부터 첼시~인터밀란~레알 마드리드 사령탑을 거치며 명성을 쌓았고, 지난해부터 다시 첼시 지휘봉을 잡고 팀 재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는 ‘스페셜 원’이라는 수식어에서 알 수 있듯, 가는 곳마다 팀을 우승으로 이끌며 명장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당장 무리뉴 감독을 영입하기란 쉽지 않다. 무리뉴 감독은 첼시와 계약기간이 3년이나 남아있다. 이에 따라 브라질축구협회는 당장 영입이 힘들더라도 무리뉴 감독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나타낼 계획이지만, 스콜라리 감독은 3·4위전 직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내 거취를 논할 때가 아니다. 내 거취는 브라질축구협회가 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 무리뉴 감독을 영입하기란 쉽지 않다. 무리뉴 감독은 첼시와 계약기간이 3년이나 남아있다. 이에 따라 브라질축구협회는 당장 영입이 힘들더라도 무리뉴 감독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나타낼 계획이지만, 스콜라리 감독은 3·4위전 직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내 거취를 논할 때가 아니다. 내 거취는 브라질축구협회가 정한다”고 밝혔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1-7 패, 0-3 패…브라질 선수들도 말문 막혔다

오스가 “할 말이 없다” 하미레스 “평생 기억”
벤지 지킨 네이마르도 눈물…충격의 브라질

세계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굴욕 앞에 브라질은 할 말을 잃었다.

자국에서 열린 2014브라질월드컵 4강전에서 독일에 1-7로 참패를 당해 결승 진출이 좌절된 브라질은 13일(한국시간) 벌어진 네덜란드와의 3·4위전에서도 0-3으로 저 완전히 자존심을 구기고 말았다.

이는 상상할 수 없었던 최악의 결과다. 경기 후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던 브라질 선수들은 현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

서 한결같이 ‘참담’, ‘비통’ 등의 단어를 사용해가며 안타까워했다.

공격수 오스카(첼시)는 “할 말이 없다. 3위라도 해서 자존심을 지켰다면 좋았겠지만 우리 그것마저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고, 미드필더 하미레스(첼시)도 “슬픔뿐이다. 내가 계속 축구를 하는 동안 영원히 괴롭힐 것 같다. 특히 독일전은 평생 기억될 것 같다. 국민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8강전까지 4실점으로 든든하게 골문을 지켰지만, 마지막 2경기에서 10실점을 한 골키퍼 세자르(토론토)도 “브라질 축구에 너무 불명예스러운 순간”이라며 가슴을 쳤다. 콜롬비아와의 8강전에서 척추 부상을 당해 벤지에서 동료들의 참패를 지켜본 네이마르(FC바르셀로나)는 주먹으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계속 목격됐다.

연이은 참사에 브라질 언론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반응을 계속 전했고, 세계 각

곳에서 브라질을 응원하던 팬들의 사망 소식까지 전해졌다. 물론 브라질 정부가 계획했던 ‘월드컵을 통한 대국민 화합’도 산산조각이 났다. 월드컵을 개최하느라 부족해진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는 등 무리한 정부 정책에 대항했던 반대시위도 자국 대표팀의 참패를 기점으로 다시 본격화되는 등 브라질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월드컵 3위, 32년째 유럽

1982년부터 9회 연속…독일, 최다 4회

네덜란드가 13일(한국시간) 브라질과의 3·4위전에서 승리하면서 유럽이 32년간 월드컵 3위를 차지하는 역사가 이어졌다. 1930년 제1회 우루과이대회부터 2014년

제20회 브라질대회까지 월드컵에선 유럽팀이 총 16차례 3위에 올랐다. 유럽 이외의 팀이 3위를 차지한 것은 1930우루과이대회에서 미국, 1938프랑스대회에서 브라질, 1962칠레대회에서 칠레, 1978아르헨티나대회에서 브라질 등 4번에 불과하다. 특히 1982스페인대회에서 폴란드가 3위에 오른 이후로는 9개 대회 연속으로 유럽팀이 득

세했다.

최근 9개 대회 중 유럽팀끼리 3·4위전을 치른 것도 6번이나 된다. 2002한일대회 한국-터키, 2010남아공대회 독일-우루과이, 이번 대회 네덜란드-브라질만이 대륙간 대결이었다. 그러나 터키가 한국에 3-2, 독일이 우루과이에 3-2, 네덜란드가 브라질에 3-0 승리를 거두면서 유럽의 강

세가 지속됐다.

한편 월드컵에서 3위를 가장 많이 차지한 나라는 독일(4회)이다. 독일은 1934이탈리아대회에서 오스트리아를 3-2로 따돌리고 처음으로 3위에 올랐다. 이후 1970멕시코대회(우루과이전 1-0), 2006독일대회(포르투갈전 3-1), 2010남아공대회에서 모두 3·4위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전영희 기자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트위터@mkhj2357

4등

Lotto6/45

당첨번호

● 제 606회 Lotto6/45 당첨번호

당첨번호

2등 보너스 숫자

1

5

6

14

20

39

22

1등 총 당첨금

1131566850

● 1등 총 당첨금은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금의 50%이며, 당첨 개입수가 복수인 경우 균등 배분됩니다.
총 당첨금은 총 판매금액의 50% 이상입니다.

등위 및 당첨자수	당첨금액(만)	당첨금 내역
6등 숫자 일치	10명	1,311,566,850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5등 2개 숫자 일치	44명	49,680,563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 3개 숫자 일치	1,542명	1,417,604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 4개 숫자 일치	82,879명	50,000 50,000원
2등 5개 숫자 일치	1,366,588명	5,000 5,000원

● 상기 당첨금은 1개당 당첨금액 기준입니다.(세금 공제 전)

● 추첨일 : 2014. 7. 12

● 당첨금 지급기간 :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까지

● 당첨로또 골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 www.lotto.co.kr

로또 구입
유의사항

●로또구매는 일확천금의 요행이 아니라 가벼운 오락 및 기부이며, 지나친 복권구매는 도박중독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형사제199제 미연은 복권을 구입하실 수 없습니다. ●복권은 1인당 1회 10원만을 초과하여 구입하실 수 없습니다.